



## 덕량을 넓히는 방법

### 도량이 넓은 정승

조선 시대 야사를 모은 『대동야승大東野乘』 속에 이기李璽(?~?)가 지은 『송와잡설松窩雜說』이 들어 있는데, 거기에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정광필鄭光弼은 기묘사화가 일어났던 해에 영의정으로 있었다. 사화가 있기 전 화재가 사정전思政殿까지 파급된 일 때문에 좌우의 신하들이 각기 화재에 대한 대책을 올렸다.

이 때 승지 한충韓忠이 나아가서, “성상께서 애써 좋은 정치를 펼치시려고 하나, 비루한 사람이 감히 영상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재변이 일어나는 것이 반드시 그 때문이며, 그래서 좋은 정치를 이를 가망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정광필이 빈청賓廳(당상관이 모여 회의하는 곳)으로 물러나오자, 우의정 신용개申用溉는 불쾌한 얼굴빛을 드러내며 큰 소리로, “젊은 사람이 면전

에서 정승을 배척하니, 이 버릇이 자라나게 그냥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나, 정광필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손을 저어 말리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들이 성내지 않을 줄 알고 이 말을 한 것이요. 만약 조금이라도 마음에 꺼리는 것이 있었다면, 비록 그렇게 하라고 시켜도 반드시 하려들지 않았을 것이요. 나에게서는 굳이 해로울 것 없으니, 젊은 사람들이 용감하게 말하는 기풍을 꺾는 일은 마땅치 않소.”라고 하였다. 신용개도 그 말에 탄복하였고, 이것을 들은 사람들도 대신에게 도량이 있다고 여겼다.

이 이야기는 재상으로서 정광필의 도량이 얼마나 넓은지 보여주는 한 대목이다. 『송와잡설』에서는 조선 전기 명재상에는 네 분이 있는데 황희黃喜·허조許稠·이준경李浚慶과 함께 정광필을 꼽았다. 그는 연산군 조정에서 직제학을 거쳐 이조참의가 되었는데, 임금이 사냥을 너무 자주 다닌다고 간했다가 아산으로 유배되기도 하였고, 기묘사화 때 조광조를 구하려다 영중추부사로 좌천되기도 하였다. 한충도 그해 겨울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거제도에 유배당했다가 2년 뒤 의금부에 투옥되어 장살을 당했다.

도량度量은 ‘사물을 너그럽게 용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깊은 생각’을 일컫는 말이다. 이와 유사한 말에는 ‘어질고 너그러운 마음씨’인 덕량德量이 있다. 이제 다룰 주제는 율곡 선생의 ‘덕량 넓히기’인 회덕량恢德量이다. 마음공부에 진척이 있어 수양이 잘 된 사람일수록 덕량을 클 것이다. 그래서 덕량을 넓히는 일도 수양의 한 부분이

다. 왜 덕량을 넓혀야 하며 또 어떻게 하면 덕량을 넓힐 수 있는지, 그리고 덕량의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 **한석봉의 떡과 맹자의 베틀**

조선 중기 서예가 한호韓濩의 호는 석봉石峯이다.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보다 호가 더 알려져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석봉 이야기’가 실렸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의 요지는 이렇다.

석봉이 공부하러 절에 가서 글씨를 배우다가, 어느 정도 글씨를 잘 쓰게 되자 자기의 뒷바라지를 위해 떡 장사를 하며 고생하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집으로 왔는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어머니는 아들을 깨우치기 위해 불을 끄고 떡 썰기와 글씨 쓰기의 시합을 했다고 한다. 당연히 글씨가 엉망인 아들을 그날 밤 곧장 절로 다시 보냈다는 이야기이다.

이것과 거의 유사한 이야기에는 맹모단기孟母斷機라는 고사가 있다. 그것은 이렇다.

맹자는 어렸을 때 집을 떠나 멀리 있는 스승에게 글을 배웠다. 글을 좀 배우자 맹자는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 도움을 줄 것 같아 집에 돌아왔다. 이 때 어머니는 베틀에 앉아 베를 짜고 있었다. 어머니는 뜻밖에 찾아온 아들을 보고 반가워하기는커녕 “글을 다 배웠느냐?”라고, 엄한 목소리로

물으니, “아직 다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하자, 어머니는 대뜸 그 자리에서 짜고 있는 베틀의 실을 가로질러 칼로 쓱쓱 자르면서 말하기를, “공부를 중도에 그만두고 돌아온 것은 지금 내가 짜고 있던 베의 실을 끊어버린 것과 같다. 무엇을 이룰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 날로 아들을 스승에게 돌려보냈다.

영민한 독자라면 이미 눈치 챌겠지만 두 이야기의 화소話素는 너무 닮아 있다. 한석봉 이야기가 실제로 그랬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맹모단기의 고사와 한석봉 이야기의 연관성을 짐쳐본다.

두 이야기의 주제는 크게 두 방향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하나는 훌륭한 어머니의 표상이라는 점과 또 하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작은 것에 만족하면 크게 이룰 수 없다는 점이다. 덕량을 넓히는 일도 후자와 같다.

그래서 율곡 선생이 말하기를, “덕량이 넓지 못하면 조금 터득한 것에 만족하고 한 모퉁이에 치우쳐서, 높고 밝으며 넓고 두터운 경지에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여, 덕량을 넓혀야 하는 이유를 지적하고 있다. 작은 것에 만족하면 크게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은 덕량만이 아니라 모든 배움에 통용되는 일이다. 소림사 영화 시리즈에 자주 등장하는 모티브도 조금한 제자가 조금 배웠다고 우쭐대다가 하산하여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오늘 날도 음악 같은 예능을 스승에게 다 배우지 않고 조금 할 줄 안다고 나갔다가 망신당하고 실패한 경우도 그런 사례이다. 빨리 작은 효과를

보려다가 실패한 욕속부달(欲速不達)의 사례이다.

그래서 선생은 “선을 가졌다고 여기면 그것을 상실하고, 능력을 자랑하면 그 공을 잃는다.”라는 『서경』의 말을 소개하였는데, 사실 스스로 선을 가졌다고 여기면 자기가 더 힘쓰지 않아서 덕이 이지러지며, 스스로 능력을 자랑하면 노력을 다하지 않아서 공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도리는 무궁한 것이어서 공부하는 이는 먼저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충고한다.

또 덕을 쌓아 넓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굳이 도덕적이어서만은 아니다. 실제로 덕 있는 사람이 형통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명심보감』에 “만족은 손해를 불러오며 겸손은 이익을 드리운다.”라는 말도 그런 뜻이고, 『주역』의 “포용력 있고 넓고 빛나고 두터우면, 만물이 모두 형통하다.”라는 말도 그런 뜻이다.

그래서 덕을 쌓아 마음이 크면 자기와 관계된 온갖 사물들이 모두 형통하고, 덕이 없어 마음이 작으면 온갖 사물들이 모두 병든다고 한다. 형통하다는 것은 만사형통과 같은 말로서 덕을 쌓은 사람은 모두 그렇게 된다는 뜻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만사형통이라는 게 점치는 자의 욕심대로 된다는 뜻은 아니다. 원래 『주역』이 점치는 책이기는 해도, 점의 결과에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주체적으로 대처하는 일이 더 중시되었다. 이익과 손해, 길하고 흉한 것은 인간의 가치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무능한 사람에게 갑자기 큰 벼슬이 주어지는 일이 생긴다고 가정하자. 이는 좋은 일이 아니

라 되레 흉한 일이 될 수 있다. 벼슬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재물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집패가 길하고 흉한 것이 나와도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패가 나아도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흉하고, 아무리 나쁜 패가 나아도 조심하고 경계하여 덕을 쌓으면 흉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변화를 말하는 주역의 불변하는 이치이다.

그래서 평소 덕을 두텁게 쌓아 수양하는 사람에게는 형통할 수밖에 없다. 형통이란 굳이 재물이나 권세나 명성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그보다 덕을 쌓아 자연과 세상의 도리를 즐겨 막힘이 없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

또 말한 마음이 작으면 온갖 사물들이 병든다는 말은 실제로 한 사람의 옹졸한 마음이 온갖 사물에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의문도 들지만, 당시 군주제 아래에게는 설득력이 있는 말이다. 오늘날도 우리가 마음이 좁은 독재자나 지도자를 만나면, 세상을 부조리와 탐욕으로 병들게 하고 자연이 파괴되는 현상을 보지 않는가? 또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불교의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에 따라, 내 마음이 옹졸하면 내가 바라보는 세상도 모두 병들게 되어 있다는 뜻이리라. 그 반대면 내가 바라보는 세상 만물이 다 형통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덕량을 넓혀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 못 본 척 하자

『명심보감』에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그 뜻은 너무 살피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곧 지나칠 정도로 깐깐하게 남의 단점을 꼬치꼬치 캐내면 친구가 줄어들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흔히 사람들은 이 말을 작은 부조리에 대해서 적당히 눈감아 주어야 일이 성사된다는 것으로 확대 해석한다. 그러니까 일이 성사되려면 적당한 뇌물이라는 기름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필자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뭘 모른다고 편견하고 싶은 뜻은 없다. 그들이 생활에서 겪은 오래된 경험에서 나온 ‘그들만의 지혜’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헐! 지혜는 무슨 지혜냐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과거 우리처럼 이른바 ‘후진국 병’을 겪어본 사람들은 이해할 것 같다. 관공서는 물론이고 사업장에서도 일이 성사되려면, 작은 뇌물로서 급행료를 주고받는 일이 일상화 되었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지금은 적어도 관공서에서는 그런 게 사라져서 세상이 참 좋아졌다!

필자가 몇 년 전 필리핀에 여행 갔다가 작은 시골의 칼리보 공항에서 겪은 일도 그렇다. 그날 저녁 늦게 비행기가 뜨고 비도 심하게 와서 공항 안으로 들어가려니까, 공항 직원이 시간이 아직 안 됐다고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대신 문 앞에 줄서는 대신 여행 가방을 차례대로 놓으라고 했다. 줄의 앞쪽에 가방을 두었는데, 출발 시각이 다 되어 가자 공항 직원들은 난데없이 줄에도 없었던 여러 개의 가방을 가져와

내 가방 앞쪽에 갖다놓지 않는가? 알고 보니 그 가방의 주인들은 한국 단체 여행객이었다. 가이드가 직원에게 몇 푼 집어주고 새치기를 당연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일이 그 지경이 이르게 한 자가 같은 한국인이라 어이가 없었지만, 필리핀에서 생긴 일이니 항의는 못하고, 대신 그 공항 관계자를 몇 분간 썰어보았더니, 내 가방을 한국인 단체 여행객 앞에 슬그머니 갖다놓아 주었다. 그도 부당함을 모르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역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거기서는 급행료를 내는 것이 관행이라는 것을 알자 씩씩했다.

이 『명심보감』의 말과 유사한 뜻을 가진 말이 『주역』에 보인다. “군자가 무리를 다스릴 적에는 어둠을 써서 밝게 살핀다.”라는 말이다. 그것이다. 그 의미를 정이는 이렇게 풀었다.

밝음을 지나치게 쓰면 지나치게 살피는 잘못이 있고, 또 너무 살피면 일은 다한다 해도 포용하거나 너그러운 도량이 없게 된다. 그래서 군자는 밝게 살피는 것을 끝까지 하지 않고 어둠을 쓰니, 그런 뒤 사물을 용납하고 무리를 화합시킬 수 있어서 무리와 친해지고 편안해진다. 이것이 어둠을 쓰는 것이 바로 밝게 살피는 것이 되는 이유이다. 만약 스스로 밝은 것을 믿고 살피지 않는 것이 없다면 너그럽게 품어 주는 덕이 없어서, 사람들이 눈치 보며 망설이고 불안해 할 것이다. 이는 무리를 다스리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어서, 그야말로 밝게 살피지 못하는 일이 된다.

‘어둠을 쓴다’는 말의 의미는 ‘알아도 모른 척 한다’는 뜻으로 지도

자나 뒷사람일 때 특히 필요한 일이다. 집에서 아이들이나 배우자가 하는 일을 꼬치꼬치 깨물어 따지면 친한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다. 직장에서든 뒷사람이 업무를 지나치게 간간하게 감독하거나 따지면, 되레 거리가 멀어지고 일도 형식적으로만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른바 보여주기만을 위한 ‘전시 행정’이 되므로, 조직을 경영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덕을 넓히는 일이 형통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또 덕을 넓히는 방법 가운데는 “완고한 이에게 성내고 미워하지 말며, 평범한 사람에게 완벽함을 바라지 말라.”라는 『서경』의 말도 인용하고 있다. 무식해서 꼭 막힌 사람에게 성내거나 잔소리해서 뭣 하겠는가? 왜 야단맞는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꾸중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더구나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일은 덕이 부족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무턱 대고 화를 내지 않고, 불필요하게 요구하지 않는 일이 덕을 넓히는 일이다.

『서경』에는 또 이런 말도 있다.

반드시 참아야 일을 이루며, 용납해야 덕이 커진다.

덕을 넓히는 데 어둠을 쓰는 것 외에 인내와 용납도 필요함을 말했다. 남의 작은 실수나 미숙함에 대해서 야단치거나 화내지 말고 포용해야 일도 성공하고 덕도 커진다는 말이다. 여기서 관용이 덕을 넓히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이로 보면 선생의 마음공부에 보이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타인에게는 관대하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조직의 리더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당신은 얼마나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하고 관용을 베푸는가?